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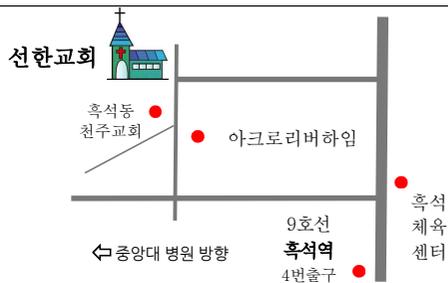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b>오 후 예 배</b>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b>중 국 어 예 배</b>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b>금 요 기 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에 스 더 회 오후 2:0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b>담임목사 임 춘 배</b>	<b>국 내 선 교 사</b>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b>협 력 교 회</b>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b>은 퇴 장 로</b>	고 상 돈, 김 대 희	<b>관 리 장 로</b>	손 석 규
	박 희 태	<b>500/50 교 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b>장 로</b>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6.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전서1:6~7)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6장 (통일찬송가 14장)
교 독 문	교독문 8 (시편 14편)
찬 양 과 경 배	292장 (통일찬송가 415장)
대 표 기 도	조 윤 익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1장 3 ~ 9절
설 교	<b>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b>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김진만 전도사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시편 23편 1~6절)

교 회 소 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주일예배는 1.2부 각 20명씩 신청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주중예배: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는 대면으로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일독하신분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 주 간 의  
기 도 제 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찬송 :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통 341)

본문 :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 갈렙의 인생은 억울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첫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을 때의 일입니다. 12지파 대표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외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 40년을 광야에서 낭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던 때의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선포를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민 13:30)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대표자의 이름으로 갈렙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7장에서 모세의 안수를 받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질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지역의 땅 분배가 이뤄지던 때의 일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청합니다. 어쩌면 이 땅은 갈렙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1장에서 레위 자손들 중 고향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제비를 뽑아 이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됩니다. 갈렙이 수십 년을 믿음으로 바라던 땅, 거저 얻은 것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땅을 레위 사람들과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갈렙의 억울한 감정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의 고백들 속에서 그가 평소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정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민 14:8)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수 14:12)

갈렙의 인생에 있어 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45년을 광야에서 방황했고 여호수아보다 인정받는 자리에 앉지 못했으며, 노년에 얻은 땅을 타인과 공유해야 했을 지라도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기뻐하시면 그 삶은 복된 것으로 여겼던 갈렙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분명한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전1:3-9)

서론

고린도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 1. 고린도전서 이해

- (1) 저자: 사도바울 (공동발신자: 형제 소스데네)
- (2) 기록연대 및 배경: ①AD55-57년(에베소) ②고린도는 항구상업도시/다양한 인종/우상숭배와 성적문란 ③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때 세운 교회(행18장) ④고린도교회내 각종 문제발생 소식 들음
- (3) 기록목적: 고린도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의문점들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함

### 2. 교회와 성도 이해

- (1) 교회는 “부르심을 받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공동체(2절)
- (2)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자들(2절)
- (3)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①은혜와 평강(3절) ②풍족한 언변과 지식(5절)-그리스도 증거(6절) ③끝날까지 견고하게 하심(8절) ④미쁘심(9절)

### 3. 교훈

- (1)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2)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 (3)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는가?

본문

결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조윤익 장로

박영근 장로

매일 Q.T.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혼 언약과 독신

날짜 : 3월 1일

찬양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본문	마태복음 19:1-12
말씀요약	바리새인이 이혼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로써 이혼을 허락함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누구든 음행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면 간음하는 것입니다 독신에 대한 말씀은 받을 만한 자가 받아야 합니다.
목상질문 1	결혼과 이혼에 관해 19:1-9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크리스천으로서 결혼 언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독신에 관해 19:10-12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든 삶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한절목상	마태복음 19:7-8 '완악함'은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악함은 선한 생각도 악으로 변질시킵니다. 분명 이혼에 대한 하나님 명령은 금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가르친 예외 조항으로 이혼 금지 원칙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이 '허락'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은 원칙이고, '허락'은 예외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허락'의 규정으로 준엄한 '명령'을 무너뜨리려는 꾀변이 바로 완악함의 증거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보다 제 행복과 욕망을 앞세워 결정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완악한 이 세대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 가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가 삶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목적은 동일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찬양과 기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새 214)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얼마 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언니를 위해 병상 세례를 요청하신 집사님 내외분과 함께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체할 수 없어 다급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산속에 위치한 한적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환자분은 너무나도 마르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머리를 스카프로 가리고 계셨습니다. 환자분에게 굳더더기 없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초청을 하고 답변을 기다릴 때, 작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엄마를 간병하기 위해 옆에 있던 큰딸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엄마와 함께 하늘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요!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흔이 넘은 큰언니가 아픈 동생과 조카가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30년간 들은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다. 하나님의 뜻이 놀라고 신비했습니다. 하나님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기다림이었습니다. 한 분 집사님의 30년의 기도 제목이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20:1~16
목상포인트	하나님 나라를 이른 아침부터 나가 품꾼들을 찾는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품꾼이 포도원으로 부름 받을 때는 이른 아침일 수도 있고 늦은 오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1시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며 우리 능력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삶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얼마의 품삯을 약속했나요? 주인이 품꾼들을 데려온 시각은 어떠했나요?(1~7절)
적용하기	주님이 먼저 부르신 사람도 있고, 나중 부르신 사람도 있음을 안다면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아무 공로 없는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맡겨 주신 일을 소중히 여기며 선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기쁨 되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희생을 통한 영광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날짜 : 3월 5일
찬양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본문	마태복음 20:17-34		
말씀요약	예수님이 인자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주님 좌우편에 앉혀 달라 청하자 제자들이 분 냅니다. 예수님은 으뜸 되려면 중 되어야 하고,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하십니다. 치유받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목상질문 1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20:17-28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영광을 구하기에 앞서 내가 행할 섬김과 희생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맹인 20:29-34 우리가 저지함에도 예수님을 향해 외친 두 시각 장애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주님 앞에 망설임 없이 간청할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0:31 약자의 목소리는 종종 무시당하고 거부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시각 장애인을 막아섰습니다. 부르짖음을 소음 취급하고 비난하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에 어울리지 않는 미천한 자들의 소란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바로 이런 약자들의 구원을 위한 길임을 미처 몰랐습니다. 세상은 강자의 목소리로 가득하지만, 예수님 앞은 억눌린 약자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구원의 터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만 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높아지고 대접받기를 즐기는 본성을 꺾고, 가장 낮아지고 먼저 섬기신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소서. 잠잠했던 입과 갸름했던 눈이 열리도록 주님만 구하게 하소서.		

매일 Q.T.		어린이 마음으로 따를 생명의 주님	날짜 : 3월 2일
찬양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본문	마태복음 19:13-22		
말씀요약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와 기도를 받며 어린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십니다.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목상질문 1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 19:13-15 어린이의 어떤 속성이 천국 백성에게 꼭 필요할까요? 내가 겸손히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할 일은 무엇일까요?		
목상질문 2	부자 청년의 고민 19:16-22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온전함을 위해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19:20-21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치는 '온전한'(헬.텔레이오스) 삶입니다. 온전함에 대한 명령은 '나를 따르라'로 귀결됩니다. '온전(완전)하다'의 반대는 '부족하다'(헬.히스테레오)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의 부족함의 원인은 '많은 소유'였습니다. 부족함에 발목이 잡히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족함의 요소는 각기 다르지만, 제자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 해결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근심하며 돌아서는 부자 청년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제 소유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늘 보화를 쌓으며 어린이처럼 살게 하소서.		

매일 Q.T.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 상급을 얻으라	날짜 : 3월 3일
---------	-------------------------	------------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본문	마태복음 19:23-30
말씀요약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훗날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고,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목상질문 1	부자와 하나님 나라 19:23-26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은 물질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목상질문 2	위대한 반전이 있는 하나님 나라 19:27-30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마태복음 19:25-26 '부자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자들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한 것은 구원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 능력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비롯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불가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에는 모든 것이 '가능'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친 이에게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신 주님!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고 누군가는 어리석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돈이 최고라고 외치는 세상에 주님이 전부이심을 보여 주는 인생 되게 하소서.

매일 Q.T.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산법	날짜 : 3월 4일
---------	----------------------	------------

찬양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본문	마태복음 20:1-16
말씀요약	천국은 마치 품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품꾼들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값을 줍니다. 먼저 온 이들이 원망하자, 주인은 이렇게 주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 합니다. 이처럼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됩니다.
목상질문 1	포도원 일꾼 고용 20:1-7 제십일시(오후 5시)에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일꾼 중 나는 몇 시에 부름받은 자라고 생각하나요?
목상질문 2	주인의 품삯 지급 20:8-16 일찍 왔든 늦게 왔든 같은 품삯을 지불한 데서 드러나는 주인의 성품은 어떠한가요? 남의 것과 비교해 불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한절목상	마태복음 20:15 '선'(헬.아가쓰스)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라는 주인의 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원망하는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공평하지 않기에 선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은혜는 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도 때로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의미한 평가를 멈추십시오.
적용	
오늘의 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수고를 인정받기 원했던 탐욕스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신 은혜로 인해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하루 하루 살게 하소서.